

景觀의 解釋에 관한 研究(I)

俞 炳 林*

目 次

- | | |
|----------------|--------------------|
| 1. 序 論 | 4. 景觀의 時間性 그리고 場所性 |
| 2. 景觀을 「읽는」 方式 | 5. 結 論 |
| 3. 環境樣式으로서의 景觀 | |

1. 序 論

物理的 환경은 한 文化를 되비추는 거울로서 比喩된다. 어떤 定住社會에서도 이 둘 兩者는 서로 相應調整되고 또 같이 움직인다.

어떤 文化에서 그것의 未來의 物理的·空間的 環境(spatial environment)을 推論, 豫測하는 것이 과연 可能한가? 혹은 그 反對의 경우도 가능할 것인가?

類似한 環境 속에서 유사한 문화가 반드시 자리잡는가? 지극히 明白한 關係가 아니고는 이의 설명이 매우 어렵고 또 의심스러운 것처럼 보인다.

한 社會는 그 자체의 社會樣式(social patterns)를 적절히 變更하지 않고 또 다른 社會에서부터 環境의 形象들(environmental features)을 借用함을 가끔 본다. 이 貸借關係에서 한 社會는 必然的으로 그 社會의 環境과 社會關係(social relations)에 變化가 수반된다. 과연 이러한 變化를 意圖하는 本質的인 理由는 참으로 알기 어렵다.⁽¹⁾

社會變動과 空間變化는 變化라는 意味에서는 유사하나 매우 相異한 樣相으로서 이해된다. 더구나 社會變動과 空間의 變化 혹은 도약(spatial jumps)은 때로는 전혀 관련지어 설명되지 못할 경우도 있다. 社會變動이 일어나면 이에 수반되어 여러가지 공간적·環境적 變化가 일어난다. 從前社會의 象徴物이 부서지고 철거된다. 東상이 무너지고 特定이름들이 代替되고, 特定인물의 象徴物이 사라진다. 公會堂의 표시판 떨어지고, 塔이 무너진다. 國旗가 바뀐다. 그러나 이럴경우에도 人간의 活動樣式은 어디까지나 從前의 空間的 容器(spatial container) 속에서 단순히 變轉될 뿐이다.

象徴物은 바뀌어도 거대한 物理的 裝置(physical setting)는 그대로 存續한다. 오히려 革新된 社會는 종전社會에서 蓄積된 社會資本을 經濟的으로 合理的으로 이용하도록 勸獎하기

*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專講

(1) Kevin Lynch, *What time is this place?* M.I.T. Press, Cambridge, Mass., 1972, pp. 218-19.

까지 한다. 새로운 政府가 들어서도 동일한 建物에서 執務하게 되고 새로운 宗教가 일어나도 역시 있던 建物을 사용한다.

물리적 환경은 傳統의인 사회질서를 安定시키는 役割을 한다. 아무리 急進的인 사회에서라도 현존의 질서라든가 가까운 과거의 象徴은 비록, 파괴되지만 길고 먼 過去의 찬란한 榮光은 保全되고 나아가 讚美되기까지 한다.

일반적으로 文化의 進化는 그속에서의 社會樣式이 물리적 변화속에서 가장 쉽게 殘存할 수 있는 方向으로 選擇되어 진다. 이런 경우 어느 정도의 未完成 狀態——또다른 變化에 더 適應되기 쉬운 형태의 사회나 環境水準——은 오히려 발전에 있어서 利點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원치않는 사회파급효과 없이 공간변화를 조정한다는 것은 원치않는 空間의 效果없이 社會變動을 主導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공간적 환경은 社會환경보다 더 從屬의이고 自律意思가 보다 弱하기 때문이다. 사회변동과 (물리공간적) 환경변화는 同一한 效果를 갖기爲해서 같은 형태를 띄지 않는다.

그러나 環境樣式이든 社會樣式이든 그 어느것이나 그 자체가 獨自의인 良否의 性格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사람의 認識과 行動이 어떻게 有關하게 관련되고 있느냐에 따라 判別된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 間接的으로, 또 어떤 일정한 制限된 方式이라는 經路를 통해서 이루어 진다. (2)

하나의 文化에서 이것의 물리적 환경의 미래를 예측하는 過程을 보는데는 여러가지의 立場이 있을 수 있다. 물리적 환경의 樣態는 곧 環境樣式(environmental patterns)을 空間的으로 表現함으로써——따라서 그렇게 理解함으로써——可能해 진다. 환경양식을 사회양식과 관련시켜 생각할때는 文化라는 脈絡(context)속에서 분석되어야 하는 일단의 작업이 필요하다.

환경양식은 단순히 공간양식(spatial pattern)과 활동양식(activity pattern)으로 양분해서 관찰될 수도 있다. 이 간단한 兩分法을 우선 전제로 할때 환경양식은 공간에 대한 시간성, 다시 말하면 場所的 價値에 대해 時間的 意味를 부여함으로써 그 全體를 把握하고자 하는 可能性이 나타나게 된다. 물리적 환경의 미래를 豫測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이를 통해 미래의 可能的, 歸結的인 空間構造를 暗示하며 이러한 台辭(senario)를 바탕으로 현재의 환경구조를 변화하며, 이 變化를 合目的으로 밀어 나가하고자 하는것 때문이다. 이 작업속에서는 過去와 未來의 現在에 대한 概念과 態度가 가장 核心이 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모두 우리의 觀念속에 있다. 이들은 서로 엉켜 影響을 주고 또 동시에 生成된다. 이들의 內容과 範圍는 여러가지의 요소에 의해서 決定된다. 과거 경험속에서의 “번영”과 安定 같은 것, 感知된 환경의 상징적인 保證性(security), 현재의 壓力, 그리

(2) *Ibid*, p. 223.

고 있을 법한 미래의 기대같은 外的 요소에 영향을 받기도하고 또 好奇心을 갖는 힘, 自我意識, 象徵하는 能力,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一定한 습관과 같은 內部的 요소에 의해서 이것들이 決定되기도 한다.

알고 있는 過去에 의해서 미래의 展望(vision)이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명백하다. 그러나 바람직한 미래에의 所望에 의해서 우리의 過去가 새로이 着色된다는 사실은 더욱 더 흥미롭다.

현재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도 그러므로 무엇이 記憶되고 있고 무엇이 豫想되고 있는나에 따라서 강하게 영향받고 決定된다고 할 수 있다. (3)

空間變化와 社會變動을 냉정한 사실(facts)로서, 事件(events)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의 固定軸上에서 說明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이러한 作業을 위해서라면 단지 지도제작자나 문서관리인만 있으며 족하다. 역사가와 環境設計家가 이들과 다른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환경양식의 解釋에 있어서 時間的 意味를 부여할 수 있는 能力에 있다고 할 수 있다.

時間性이 부여될때만 기억속에 남아있는 過去와 소망의 미래가 현재의 우리속에 어떤 連續性을 가지고 연결되어진다. 과거의 영광스럽고 찬란한 유물과 기념물이 우리의 日常生活속에 아무런 관련없이 존재할때 그것은 단지 考古學的인 가치밖에 없게 된다.

環境樣式을 空間的으로 物理的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前述된데로 社會變動과 空間變化를 예상하는데 도움이 된다. 本考는 社會變動과 관련해서 이것에 時間的인 의미를 부여하여, 이를 文化的 特性(traits) 속에서 把握하고자 하는 努力의 一部인데 주로 概念構成으로서의 景觀(landscape) (4)에 對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物理的 景觀(physical landscape)을 근거해서 이것이 認識되는 過程과 그것의 變化樣式, 그리고 이의 質的 價値를 吟味하고 이를 「解釋」하고자 한다.

우리의 環境病(environmental ills)은 근본적으로 心性的的(psychosomatic)이다. 우리 文化價値의 產物이며 토지라든가 貧富, 個人的 自由, 變化등에 대한 우리의 내부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태도의 복합적인 결과물이다. 技術은 오직 하나의 手段일뿐 그것 자체로서 自己完結的이 되지 못한다. 더 많은 사람의 눈에 의해서 주위(surroundings)가 음미되어야 된다. 그리하여 좋은 환경으로 인해 사람들이 더 豊富해지며, 否의 환경에 놀라 이를 단호히 거절할 수 있게되는 기회——환경감상(enviromental appreciation)의 기회와 方法이 講究되어야 된다. (5)

감상은 단순히 贊同한다는 것이 아니다. 區別하여 認識한다는 것이며. 感覺的으로 分別있

(3) *Ibid.*, p. 124.

(4) 여기에서는 넓은 意味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것은 社會變動과 空間變化의 흔적이 場所的으로 눈앞에 —따라서 우리의 認識속에— 展開될을 鳥瞰的으로 보고자 하는 態度이다.

(5) D.W. Meinig, "Environmental Appreciation: Localities as a Human Art", *The Western Humanities Review*, Vol. XXV, No. 1, Winter 1971, p. 10.

게 把握한다는 것이 된다. 환경감상과 음미는 따라서 보통의 정도를 넘어서 더 많이 경험하며 더 깊이 꿰뚫어보며, 더 빨리 看把할 수 있는 느낌(sense)과 感性力이 장시간의 努力과 訓練을 통해 必要된다.⁽⁶⁾

2. 景觀을 「읽는」 方式

物理的 景觀을 구성하고 있는 要素중에는 過去와 직접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는 性格을 갖는 것이 매우 많다. 景觀은 서적이거나 法令集과 같이 過去를 기록해 놓은 文書로서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公共의 印象(image)이 그려진 일종의 흔적이며 환경에 대한 인간 意志의 外的 表現의 結果라고 할 수 있다.⁽⁷⁾

이러한 흔적의 表現과 文化的 反響으로서의 景觀은 기록된 文書가 그것이 정확히 「읽혀지지」 않으면 그것은 단순한 文字의 수록에 不過하드시 단순히 눈앞에 展開되는 景觀은 보이는, 보기 위한 풍경일뿐 이것이 음미되고 해석되지 않으면 아무런 意味를 갖지 않는다. 이것이 記憶속에 강하게 선이 고여져서 남아있지 않으면 그것은 단순한 그림에 지나지 않는다. 景觀은 그러므로 우리의 經驗을 위한 하나의 “장치(settings)”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치는 여러가지의 段階를 거치는 過程속에서 具體化된다. 文化를 個人의 活動, 生活樣式, 印象, 價値 等の 變數들의 구성관계로서도 이해한다. 어떤 社會에서의 個人活動은 이것이 連續化되면 一定의 生活樣式으로서 대표되고, 이것은 곧 公共의 「이미지」로서 남게 되고 또 이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變化해 나간다. 이 공공의 인상은 곧 그 社會의 價値를 形成하는 중요한 要因이 되며 이것이 下部文化(subculture)의 核心요소가 된다. 文化의 구조를 이러한 입장으로 이해한다면 이 경우 景觀은 個人의 活動의 本體(activity properties)와 그러한 活動의 具體的 行動方式이 發現되는 場이된다.⁽⁸⁾ 그러므로 이러한 過程의 理解方式이 景觀을 읽는 하나의 方法이 되게 되는 것이다.

景觀은 하나의 價値의 대상으로서 把握된다. 일정 集團內에서의 一般의인 合意(consensus)로서 혹은 한 集團生活의 象徴으로서 이해된다.⁽⁹⁾ 이것은 認識者에 의해서 무엇이 거기 있는가 卽, 實在하고 있는것의 意味가 문제되며 그러므로 評價의 문제로 歸着되는 것이다.

文化를 “身體外的인 脈絡에서 고려된 象徴行爲의 產物들, 즉 상징행위에 의거한 事物 및 事件들의 部類(the class of things and events)”로서 정의한다면⁽¹⁰⁾ 景觀의 質的 價値의

(6) *Ibid.*, pp. 1-2.

(7) Roderick Nash, “Qualitative Landscape Values: The Historic Perspective”, *Landscape Assessment*, Zube(ed.), Halsted Press, Stroudsburg, Penn., 1975, pp. 16-17.

(8) A. Rapoport, “Images, Symbols and Popular Design”, *International Journal of Symbolology*, Vol. 4, No. 4, 1974, p. 167.

(9) 宗教활동의 상징적 표현이 기독교에서는 교회, 불교는 사찰, 유교는 서원, 이슬람교는 사원 중심의 景觀으로서 發現되는 것이 例.

(10) Leslie A. White, *The Evolution of Culture: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to the Fall of Rome*, New York, McGraw-Hill, 1959, p. 234.

表現은 곧 이러한 事象의 象徵性에 의해서 判別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景觀의 解釋은 곧 이러한 인간활동의 象徵行爲의 공간적 표현을 吟味하는 것이 된다.

文化는 또한 그 社會의 環境生産過程(environmental production process)에 관계되는 그 社會의 質的 良識의 表現이다. 이 過程에서 景觀은 地域的, 國家的으로, 內向的으로 혹은 外向的으로 첨가되고 그 시간 그 社會의 철학적 태도가 樣式(style)이라는 형태로 재정리된다. 이 경우 景觀 구성의 가장 주된 요소는 社會의 힘(social forces)이다. 이것의 力關係가 景觀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關鍵이 된다. 즉, 사람의 行動과 觀念(ideas)이 交互하는 과정이 그 社會의 性格을 결정하게 되면 이것이 空間變化를 誘導하게 되며 새로운 景觀이 時差를 두고 서서히 變形된다. (11)

이 交互關係는 어떤 特定の 社會의 힘으로 作用될 경우 이외에도 그 社會의 代表的 空間利用의 形態에도 영향을 주게됨을 본다.

公共景觀(public landscape)은 개인에 의해 형성되는 景觀과는 달리 그 社會의 代表性을 갖는다. 현대의 高速道路는 그것이 하나의 公共의 使益施設로서 보다는 그 社會를 結合시키는 公共의 交互의 場所로서의 社會的 意味가 더 크다. 이런 景觀은 社會적 機能이라는 의미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市場, 公園, 公共建物は 공공의 集會場所로서 공공경관 형성에 기여한다. 이것 역시 集合한다는 일차적 목적보다는 또 다른 社會的 의미로서 이해된다. 이러한 공간은 過去와 연결되며 殘存되고 또 지속되는 景觀으로서, 共同墓地가 이제는 아름다운 都市公園으로서, 公共建物の 時代的 利用의 變化같이 공간의 기능과 상징적 변화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계속 공공의 景觀은 不變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의 地域社會의 공공성의 表示라 할 수 있겠는데 실로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公共의 存在(public existence)를 再認識케 하는 것이다. 公共景觀은 歷史·文化的 連續的 體驗의 手段으로서 또 그것을 통해 그 당시 社會의 環境的 經驗을 擴大하므로써 지금의 우리가 그러한 環境의 過去와 미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현재의 實體라는 時間的 經驗을 再確認하게 한다. (12)

景觀의 質的문제의 핵심은 각개의 個性構造(personality structure)에 土地, 景觀, 자연이 어떤 相關性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自然의 장치물의 실제경험이 個人에게 주는 意味 혹은 이에 관계되는 思考의 體系가 개인에게 주는 의미가 곧 景觀의 질적가치 문제의 中心事項일 것이다.

景觀은 그것을 통해서 개인이 自身를 認識(self-awareness)하고 따라서 궁극적으로 자신을 자각(self-knowledge)하게 되는 경치로서 보여질때 비로서 아름다운 것이 된다. 現代에

(11) 英國의 「인크로저」(Enclosure)運動, 미국의 自然保全運動,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社會운동이 공간변화를 主導한 代表的인 例라 할 수 있다.

(12) L. Mumford, *The Highway and the City*, A Mentor Book, 1963, p. 215.

있어서 季節이 무시된채 정해진 규칙속에 休日이나 週末에만 일어나게 되어있는 環境과의 접촉을 통해서 얻는 景觀의 경험이란 環境의 새로운 인식을 기초로 하는 孤寂이나 冥想的인 感興이 아니고 단지 자기 자신의 自覺의 培養일 뿐이다.⁽¹³⁾

경관은 우리의 희망, 공포, 가치, 身分體系, 경제, 혹은 技術關係가 토지위에 記述되어 진다.

어떤 시각과 장소에서의 景觀은 당초의 自然에서의 형상이 變化되고, 代替되고, 單純化 시키고, 개발했던 人間行爲에 깊히 영향을 미치는 價値體系를 反映하게 된다.⁽¹⁴⁾

이러한 個人과 集團의 價値關係가 環境을 外形의으로 決定지우고 發展되게하는 큰 要因은 傳統, 教育, 交信 그리고 經驗의 네가지 요소로서도 說明될 수 있다.⁽¹⁵⁾

(1) 遺傳 혹은 形質의 繼承(Hereditiy)

이것은 空間變化에 있어서 기본적인 容量, 傾向, 社會的 要求를 決定하는 要素이며 環境 양식에 있어서 本態的인 反應, 反響(reflex)의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環境의 조건에 따라 環境은 이러한 태도, 가치 그리고 이의 外的 發散(aspiration)의 樣態를 決定한다.

(2) 教 育(Education)

家族關係, 學校 혹은 직장에서의 고용관계에서 연유하는 教育기능은 이를 통해서 다음의 세대가 그 社會의 (비교적 바른) 社會的 價値와 行態에 同調(assimilated)되도록 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신분체계와 관련되어 合當하다고 생각되어지는 合意된 가치체계와 知職의 片片이 傳해 내려간다. 이것은 景觀의 質的 가치를 繼承하게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3) 交 信(Communication)

一次의으로 對話의 段階에서 聽衆과 發言者의 관계로, 印刷物의 配布로, 다시 TV·라디오·무선을 통한 視覺的 「이미지」를 소회 전달하는 과정으로 環境생산과정의 일부로서 작용하로 요소이다.

(4) 經 驗(Experience)

개인은 감각오관에 의해 얻은 環境에의 경험, 이것의 축적과정을 통해,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 評價와 說明과 이해라는 綱을 통해서 一生을 보게되는데 價値가 景觀에 적용되는 보통의 方式이기도 한 것이다. 景觀을 바꾸는 意思決定者는 바로 이러한 축적된 경험의 바탕 위에 자기의 景觀에 대한 기본 태도를 形成하게 된다. 이요소가 景觀 변화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다. (次號繼續)

(13) John B. Jackson, "The Historic american landscape", Zube(ed.), *op. cit.*, pp. 8-9.

(14) Calvin W. Stillman, "This fair land," Zube(ed.), *op. cit.*, p. 19.

(15) Garrett Eckbo, "Qualitative values in the landscape", Zube(ed.), *op. cit.*, pp. 31-34.